

한우 반값 할인에 아침부터 줄서기 '오픈 런'

광주축협 하나로마트 본점 가보니

2일 오전 8시 50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광주축협 하나로마트 본점. 마트 입구는 영업시간 전에도 시민 십여 명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매장 주위를 뒤덮고 있는 초록색 천막 앞으로 줄을 선 시민들은 추운 날씨에 맞서 두꺼운 옷차림으로 마트가 문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40대 주부 김씨는 "한우를 50% 가격에 판매한다고 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왔다"며 "이렇게 사람이 많은 줄을 서는 몰랐다고 말했다."

천막이 걷히고 마트 정문이 열리자 줄을 섰던 시민들은 서둘러 매장 안으로 들어섰다. 시민들은 한 손에 노란색 쇼핑 바구니를 들고 정육코너로 향했다.

이날 할인 판매한 제품은 1+등급 한우 불고기와 국거리. 마트는 평소 5500원 수준인 한우를 절반 이하인 2480원에 내놨다. 2m 길이의 냉장고 앞을 짝 채운 손님들은 포장된 고기를 바구니에 담기 바빴다.

그러나 부추한 손길에 제동이 걸렸다. "1인당 2팩만 구매 가능합니다. 더 담으시면 안됩니다."

마트 측은 1인당 2팩의 구매제한을 두고 있었다. 한 여성은 구매제한이 있는 걸 확인한 뒤 주차장에 있던 일행을 불러오기도 했다.

바구니에 한우 국거리를 담은 70대 김모(여·광주시 서구 농성동)씨는 "어제 오전 11시에 왔는데 고기가 동이나 허탕을 쳤다"며 "오늘은 아침 일찍 서둘러 왔더니 고기를 구매할 수 있었다"며 기쁜 얼굴로 마트 밖을 나섰다.

염모(74·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는 "자전거를 타고 왔다"며 "아내와 함께 소고기 묵국을 끓여 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 개시 전부터 대기 행렬

불고기·국거리 50% 이상 저렴

'1인 2팩' 한 시간도 안돼 동나

하나로마트 4일까지 할인 행사

"한우 산업 안정화 대책 있어야"

마트 관계자는 "어제(1일)는 매장 문을 연 지 한 시간이 채 되지 않아 준비된 물량이 모두 소진됐었다"며 "4일까지 할인행사를 진행하는데 그때까지 물량이 남아있을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지역 유통업체가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시작한 '한우 할인 행사'에 시민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통업체에는 한우 할인 여부를 묻는 전화가 쇄도하는가 하면 개점 전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도 심심치 않게 생겨나고 있다.

비싼 한우를 싼값에 구매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행사에 나선 유통업체의 매출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역 110여 곳 하나로마트 등에서 한우를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가 오는 4일까지 진행된다. 이미 지난달 중순 농협 외에도 광주신세계와 롯데백화점 광주점 등이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한우 농가를 돕기 위해 시작된 이번 행사는 지역 유통업체 매출 상승에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의 지난달 전남지역 농축협 하



2일 오전 찾은 광주시 남구 월산동 광주축협 하나로마트 정육코너가 한우를 구매하려는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다.

나로마트(판매장 포함) 125곳의 한우(우육) 매출액은 51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억9700만원에 견줘 1.8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 농가 돕기에 동참했던 광주신세계는 한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 늘었고,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40% 상당 매출이 증가했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한우 소비 비수기로 접히는 이달과 6~7월, 10~12월에도 기간을 정해 소프라이즈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지점별로 할인 상품과 판매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매장 방문 전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우 할인행사에 대한 반응은 뜨거운 상황이지만, 근본적인 한우 산업 안정화를 위해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 가격이 도매가격 하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통업체는 한우의 소비자 가격 하락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국농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우산업이 무너지면 농업·농촌이 무너진다"며 "재정적·제도적인 내용을 보완해 추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전남 대표 상·하수도 배관 제조업체 될 것"



비즈 & 피플 <4> 이종창 래도번 대표

상·하수도 탐지 등 특허·기술력 보유... 시공 용이해 공사 기간 단축 "신기술·제품 개발·직원 근무 연속성 높여 지역사회와 상생하겠다"

"구준한 기술개발과 품질성 확보로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상하수도 배관 제조업체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지난 2015년 문을 연 상하수도 배관 제조업체 '래도번'의 이종창(43·사진) 대표는 업체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수한 제품성을 토대로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업체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이 대표는 "래도번의 상하수도 배관 자체는 시공이 용이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건설현장에서 수요가 늘고 있다"며 "조달청에 제품 등록이 된 만큼 국내에서 인정받은 제품"이라고 말했다.

래도번은 상하수도 배관 제조에 관련된 다양한 특허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당사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한 상·하수도 탐지장치 특허와 이중·다중

벽관 KS(한국공업표준규격) 인증, 한국품질경영시스템(KSC) 인증을 획득하며 품질 만큼은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밖에 환경표지인증과 단체표지인증, 직접생산확인 증명발급 등 믿을 수 있는 상하수도 배관 제조업체로 성장하고 있다.

이 대표의 래도번은 2015년 12월 상·하수도 배관 연결소켓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출발했다. 연결소켓 납품만으로도 비교적 괜찮은 수입을 올렸지만, 이 대표는 더욱 큰 꿈을 위해 품목 다양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상·하수도 배관을 제조해 납품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주문 생산 방식으로 공급하는 탓에 납품 기일을 맞추는 것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 대표는 "2018년 나주 일반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설립했다"며 "이후 래도번은 어엿한 제조업체로 거듭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쌓아온 품질 관련 인증은 1년 6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특히 조달청에 제품등록이 되면서 큰 어려움 없이 제조업체로서 업계에 안착할 수 있었다.

물론 공장을 설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라는 악재를 만났고, 여기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까지 겹쳤다. 원자재 가격은 치솟고, 대출금 리미트 오르면서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수차례의 어려움 속에서도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 응모해 회사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 '품질 강화'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정면돌파' 해나가고 있다.

이종창 대표는 "앞으로 연구개발부서를 신설하고, 기업부설연구소도 설립해 구준한 신기술 및 제품개발을 진행할 것"이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의 근무 연속성을 높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업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경총 금요조찬포럼

오늘 은세현 대표 강연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가 매주 금요일 개최하는 '금요조찬포럼'의 3월 프로그램 내용을 공개했다.

2일 광주경총에 따르면 3일 은세현 품질관리경영연구소 대표가 '생존을 위한 고객지향 품질로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오는 10일에는 김광호 컴비마케팅연구원 대표가 '언더독의 역습, 그것이 역사다'를 주제로, 17일에는 남양주 성관사 주지인 성진 스님이 '내 걱정 어디서 왔을까?'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밖에 24일 손관승 전 imbc 사장의 '리더를 위한 하벨류기', 문달주 서울총합과학대학원 교수의 '지속성장을 위한 리더의 역할' 등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경총의 금요조찬포럼은 우리나라 민간단체 최장수 조찬포럼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내 최고의 각계전문가와 저명인사를 초청해 개최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조찬 이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홀리데이 인 광주 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진행된다. 경총 회원의 경우 무료로, 일반 참가자는 지역민 누구나 당회 1만 원, 연 40만원의 참가비를 납부하면 포럼에 참여해 강연을 들을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광주은행 복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 협약

업체당 5년간 최대 2000만원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 복구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광주 복구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문인 복구청장과 염규승 광주은행 부행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불가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5000만원을 별도 출연했으며, 총 8억 5000만원의 '복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은 광주시 복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재창업자인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 기간은 최대 5년이다.

또 대출 취급 후 1년간 광주시 복구에서 6.0% 이하자금을 보전해주고, 광주은행은 최대 1.0%포인트까지 대출금리를 특별감면할 예정으로, 1년 일시상환대출의 경우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염규승 부행장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2019년부터 광주 복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총 1억8000만원을 특별출연해 총 166억원을 지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연임 성공...4년 더 이끈다

김기문(사진) 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중앙 회를 4년 더 이끌게 됐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61회 정기총회에서 제27대 회장으로 김기문 현 회장이 선출됐다.

이번 중기중앙회장 선거에는 김기문 회장이 단독으로 입후보했으며, 정회원 36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인원 전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임기는 2027년 2월까지 4년이다.

이에 따라 김기문 회장은 제23·24대(2007년-2014년), 제26대(2019년-현재)에 이어 4번째 회장을 역임하게 됐다.



김기문 회장은 "이번 연임은 회원분들께서 저의 지난 임기 4년과 과거 8년의 노력을 믿어주시는 결과라 생각한다"며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이번 임기도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위해 다시 한 번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초심을 잃지 않고 회원분들과 소통하며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 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이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상향돼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에서 165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에서 330만원

오른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02.64(-20.97)
↓ 코스닥	780.30(+1.42)
↑ 금리(국고채 3년)	3.683(+0.128)
↑ 환율(USD)	1323.00(+18.20)